사 설

전파매체의 새 포교사들

전국방송인 불자연합회가 드디어 창립되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각 방송사의 불교연구회가 연합하여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불교교리를 연구하고 신행활동을 펼쳐 온 것이 주춧돌이 되어 방송인 불자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연합체를 결성한 것은 21세기를 여는 한국불교의 새 얼굴이 아닐 수 없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론매체의 사회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매체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켜져있다. 휴식과 도피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안정감과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방송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종교·교육·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방송의 주역들이 불자로서 단일조직을 갖고 법회 등의 신행활동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친목도모에 앞장서게 된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자부심과 용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인 불자연합회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첫째, 좀 더 조직이 활성화·개방화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불자 방송인들의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예를들면, 불교방송이나 불교텔레비전 기타 다른 방송국의 방송인 불자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물론, 수련대회 등을 통하여 내부조직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방송인 불자연합회가 앞장 서기를 기대한다. 각종 퇴폐풍조와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 도덕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매체들이 지나친 영리추구의 상업주의에 편승되어 이러한 병든 사회를 계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뜨리는데 공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불자 방송인들이 앞장서서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대중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이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새롭게 인식하자.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부처님이 추구하신 불국정토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현단계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쌓여진 구태의연한 폐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족문화유산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많은 진통과 갈등도 따르는 법이다. 이러한 불교개혁의 목표가 하루빨리 달성되고 이 땅에 불교중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송인 불자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매체들이 특정 종교를 비호하고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때로는 불교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보도나 드라마도 있었다.

이제 방송인 불자들이 불교의 활동과 현황에 대하여 좀 더 올바르게 알리고, 진실성을 발견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길 바란다.

열린마당 불교식 차례

9월 27일.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다. 1년중 가장 큰 만월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과 술을 빚어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술대신 차를 올리는 등 불교식 차례를 지내 차례의 본뜻을 찾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불교식 차례에 대한 의의와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차례 불교의식서 비롯…술·고기 피하길

법현 〈태고종 총무부장〉

차례(茶禮)는 본래 불교의 전통 제례이다. 차례를 유교의 전통제례로 알고 있는 이가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교의 고유 전통의식인 차례는 새로 만든 차(茶)를 달여 조상님께 처음 올리고 나서 후손들이 모여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會飮)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시절에 따라 설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차례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으나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충담스님이 해마다 삼짓날(음 3월 3일)과 중굿날(음 9월9일)이면 경주 남산 삼화령에 계시는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록상 차례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까지는 모든 의식을 불교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사도 술대신 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한예로 처녀가 시집오면 사당에 고하는 의식인 고묘(告廟)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처녀가 손수 달인 차를 올리고 나서 그 차를 온가족이 모여 함께 마시면서 며느리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을 회음이라 했다. 이 회음의식이 오늘날 제사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음복이다.

특히 고려말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되면서 모든 의식이 유교화되고 차례에서도 차대신 술과 고기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그 근본 뿌리가 차를 사용했던 불교의식이었으므로 그 이름만이 '차례'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수음식을 차림에 있어서 불교인들은 떡, 나물, 과일, 전, 송편, 등을 준비하고 향, 초, 꽃공양을 같이 하며 차를 꼭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올리고 가능한한 술과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불교제례의식이라 할 수 있다.

삼배 올리고 경전봉독 '영가천도' 기원

동봉 〈곤지암 우리절 주지〉

불교에서는 유교에서처럼 분명하게 '이렇다' 할 제사의식이나 차례의식은 없다. 유교에서는 특히 〈禮記〉라는 책에서 인륜의 대사라 할 수 있는 관혼상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본디 바라문교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 불교 나름대로의 법식을 따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바라문의 전통이 치러야 할 예절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그 나라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여 불교 특유의 의식을 따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 차례를 지낼 때 상을 차리는 것이나 위패를 모시는 것은 유교의 법식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절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교에서의 재배와 달리 삼배를 올린다. 삼배를 올리는 것은 첫째 영가의 정신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요, 둘째 영가의 육체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며, 세째 영가의 공간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다. 공간적 천도란 생사에 윤회하는 사바세계로부터 이를 벗어난 극락세계에로의 공간적 이동을 뜻한다.

잔을 올리는 것도 유교와 마찬가지로 초헌 중헌 종헌으로 세 번 올리며 진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때에 따라 봉송의식을 집행하는데 봉송이란 향단에 와서 흠향한 신들을 고이 돌려보내드린다는 의식이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추석차례를 올릴 때, 먼저 음식을 진설한다. 술 대신에 청량음료를 준비하여 육류보다는 청과물을 고루 갖추는 것이 좋다. 향과 초를 갖추고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경전을 봉독한다. 초헌을 올리고 삼배한 뒤 삼귀의를 하고 〈천수경〉 봉독, 진수와 동시에 중헌을 하고 삼배한 뒤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천도발원문〉을 작성해 읽고 종헌을 한 뒤 삼배로 끝을 맺고 상을 거둔다. 혹은 〈아미타경〉만을 읽어도 좋다. 이는 성묘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렇게 지낸다

술대신 차 올리며 '아미타불' 봉송

우리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례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민속명절인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우리 가족은 과일과 떡 등으로 제수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한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차례상을 마련하고 모두들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차례상앞에 앉는다.

맏딸 반야가 먼저 초와 향을 사른 후 잠시 입정의 시간을 갖는다. 입정이 끝나면 합장한 채 아미타불의 명호(十念)를 외운다.

그리고 부처님과 조상에 절을 올리고 독경을 시작한다. 이어 영가를 청하여 절을 하고 술대신 차(茶)를 올린다. 가족들이 모두 차공양을 마치면 공양과 숭늉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모두 일어나 봉송인사로 재배하고 위패를 사르는 것으로 모든 차례의식을 마친다.

처음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낼 때는 가족들 모두 어색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의미있고 뿌듯하다며 자랑할 정도다. 불교의식으로 바꾸어 차례를 치르다보니 예전에 비해 간소해졌을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김상택·부천시의회의원〉

조상위패 절에서 모시고 경건하게

우리 가정은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경조사를 절에서 지내고 있다. 대학입시기도, 결혼식, 49재도 절에서 지냈다. 모든 경조사를 절에서 장엄한 의식속에서 검소하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지내게 됐다.

우리 가족은 이번 추석에도 절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의 위패를 절에 모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에서 차례를 지내다 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년전만해도 절에서 차례를 지낸다면 주위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으나 점차 차례를 절에서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차례상에 술과 고기류 등 산해진미로 푸짐하게 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이 가득한 절에서 간소하고 의미있게 치루는 것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또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진성·충북 충주시〉

현대만평

박구원

한가위도 부처님과 함께…

목어

정치인들의 합장

30년전 일이다. 속리산 문장대를 오르는 길에 관음암을 참배했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3배 올리고 나와 절 마당에 서 계신 스님께 합장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스님이 불러 세웠다. 잠시 기다리라 하시더니 책 한권을 들고 나왔다.

"자네 합장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내가 이 책을 선물하니 가서 잘 읽어보게."

얼떨결에 받은 낡은 책은 일본사람이 풀어쓴 반야심경 번역서였다. 명쾌한 해설에 반해 읽은후 동행했던 친구에게 다시 선물했다.

오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의 인사 '합장'에 대해 짚어보고 싶어서다. 합장은 두 손바닥을 가슴앞에 모아서 제불 보살을 공경·예배·찬탄하는 불교의 예법이다. 이때에는 합장이 경례의 뜻을 넘어 만법을 한마음의 경지로 모으는 수행의 의미도 지닌다.

〈관무량수경〉에는 수행자가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 등 삼존께 합장하고 제불을 찬탄하면 일념동안에 극락국 칠보의 연못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합장은 자기를 낮추면서 자신의 진실과 상대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불자들의 인사예절이기도 하다.

요즘 거물급 정계 인사들의 불교계 출입이 잦아지면서 정치인들의 합장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불심잡기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정계인사들은 부처님전에 합장하고 스님들께 합장하고 불자들에게도 합장한다. 같은 합장이라도 눈여겨 보면 자세가 다양하다. 종교는 다른데 합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려진 불자이면서도 서툰 분이 있다. 엉성한 모습도 있고 쑥스러워 건성하는 듯한 합장도 있다.

생각해 본다. '정치계절'이 아닌 평소에도 요즘처럼 조계사 법당을 자주 찾고 제방의 대덕스님들을 수시로 친견했더라면 상대방이 감응하는 '마음의 합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분은 불교의 정치관을 체득했을 것이고 자신의 합장이 '서약'임을 알 것이다. 불자들은 그런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갖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 법회가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동참하신 대덕 스님들과 각계 인사들께 우선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16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신라천년의 옛서울인 경주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이 될 포항의 접점에 위치한 첨단과학과 교양교육의 요람

2천만 불자들의 염원 속에 금년 3월, 신라천년의 옛서울 경주에서 개교한 대한불교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는, 이 땅의 두번째 종립 종합대학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불교흥왕과 불국정토건설은 인재불사를 통하여 이룩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자각이 우리 위덕대학교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자긍심에 가득 찬 대학경영,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작업 진행, 해외 유수대학과의 실제적인 학술교류협정 체결 등은 우리 대학이 한학기 동안 거둔 실질적인 성취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실한 대학발전을 추구하는 위덕대학교는, '97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약간명의 교수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불교정신에 투철한 많은 불자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종립
위 덕 대 학 교
UIDUK UNIVERSITY

교수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학 과	세 부 전 공 분 야	초 빙 인 원
법 학 과	• 사법(私法)	각 학과별 약간명
경 제 학 과	• 계량경제학 • 수리경제학	
경 영 학 과	• 회계학	
제어계측공학과	• 제어공학 • 전력전자공학 • 로보트공학	
전자재료공학과	• 회로 및 시스템	
통 신 공 학 과	• 이동통신 • 영상신호처리 • 광통신	
전 자 계 산 학 과	• 데이타베이스 • 운영체계	
전 기 공 학 과	• 전기공학 • 전력공학	

2. 자격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
나. 본 대학에 임용후 경주 · 포항지역에 거주 가능한 분
다.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불교 진각종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가. 국문이력서 1부(영함된사진 부착, 우측 상단에 지원학과, 세부전공, 전화번호 명기)
나.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박사학위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92. 1. 1일 이후 발표한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지, 발표년월일, 학술지명, 논문개요) 및 연구실적물 각 1편
바. 박사학위논문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1996년 10월 14일(월) ~ 10월 26일(토)
나. 제출처 : 위덕대학교 교학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우 : 780-910)
TEL. (0561)760-1011~6
FAX. (0561)760-1019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기타사항

가. 서류심사후 1차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규채용 교수는 2년간의 계약제결로 임용함.
다.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할 것.
라. 본 대학의 Internet Home page에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uiduk.ac.kr) (e-mail address : kyryu@vro.uiduk.ac.kr)